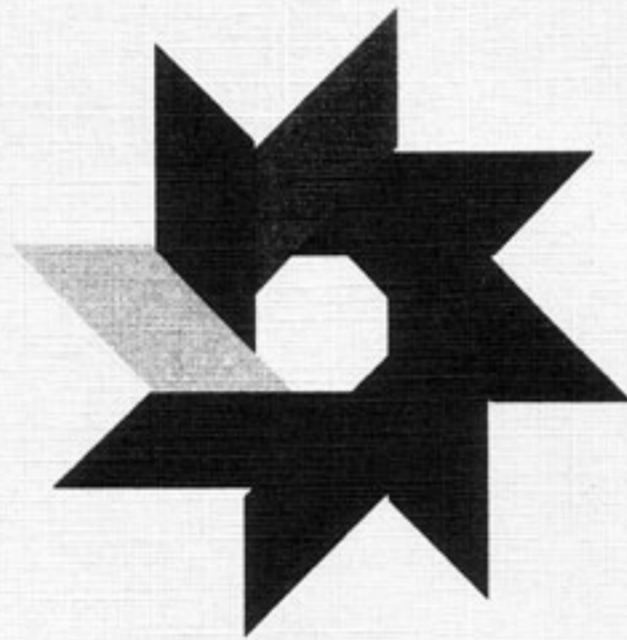


한국종교연합 (URI-Korea)

www.urikorea.org

(사)한국종교연합 발기인대회

- I. 헌장조인 4주년 기념강연회
- II. 사단법인 발기인 총회



일 시 : 2004년 6월 19일 (토) 오후 3시 30분 - 6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한국종교연합

United Religions Initiative of Korea

장충동사무소: 우 100-39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93-120 우원빌라 301 삼소방
전화: (02) 2264-8260 전송: (02)2264-8261
서대문사무소: 우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 9층 한국종교연합
전화 및 전송: (02) 3210-2456 전자우편: urikorea@chol.com
홈페이지: (한국)<http://www.urikorea.org> / (세계)<http://www.uri.org>

<< 자 료 집 순 서 >>

<목 차>

<페이지>

◎ 행사 순서 -----	-3-
◎ 환 영 사 -----	-4-
◎ 종교연합(URI)현장 -----	-5-
◎ 강 연 1. (이진월 스님)-----	-7-
◎ 강 연 2. (샬리 마혜) -----	-12-
◎ (사)한국종교연합 창립취지문 -----	-17-
◎ (사)한국종교연합정관(시안) -----	-18-
◎ (사)한국종교연합 2004년도사업계획안----	-22-
◎ (사)한국종교연합 2004년도 예산안-----	-23-

<< 순 서 >>

◇ 1부 -- 기념 강연회 (사회: 사무총장 강남순 교수)

서곡--축하공연 (법안정사 풍물패)

- * 개회 (사무총장)
- * 환영사 (대표)
- * 축사 (내빈)
- * 참석자 소개 (대표)
- * 강연1 -- 종교연합헌장 작성과 조인 배경
(진월 스님/한국종교연합 대표)
- * 강연2 -- 종교연합헌장 정신의 세계적 확산
(샬리 마헤/종교연합 세계본부 조직개발부장, 통역 강남순 박사)

◇ 2부 -- 발기인 총회 (사회: 대표 진월 스님)

- * URI 헌장낭독 (함께)
- * 경과 보고
- * 총회
 - 사단법인 창립취지문 및 정관 심의 결정
 - 임원 (이사)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타 토의
- * 광고 및 폐회

<< 순 서 >>

◇ 1부 -- 기념 강연회 (사회: 사무총장 강남순 교수)

서곡--축하공연 (법안정사 풍물패)

- * 개회 (사무총장)
- * 환영사 (대표)
- * 축사 (내빈)
- * 참석자 소개 (대표)
- * 강연1 -- 종교연합헌장 작성과 조인 배경
(진월 스님/한국종교연합 대표)
- * 강연2 -- 종교연합헌장 정신의 세계적 확산
(샬리 마헤/종교연합 세계본부 조직개발부장, 통역 강남순 박사)

◇ 2부 -- 발기인 총회 (사회: 대표 진월 스님)

- * URI 헌장낭독 (함께)
- * 경과 보고
- * 총회
 - 사단법인 창립취지문 및 정관 심의 결정
 - 임원 (이사)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타 토의
- * 광고 및 폐회

환영사

존경하는 내빈님 및 동지 형제 자매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 종교연합현장의 거룩한 정신을 기리고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에 동참하시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종교적 유엔을 자임하며 대망의 새천년을 맞아 2000년 6월 26일 세계종교연합현장을 조인한지 어느덧 네 돌을 맞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서울에서 전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약 500여명의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다섯 돌을 기리는 종교연합세계총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념행사에 동참하고자 본부에서 조직개발과 내년총회를 담당하는 샬리 마헤 여사가 오셨습니다. 현장조인 이후 전 세계 종교연합 동료들이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평화운동에 대하여 귀한 말씀들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종교연합에서는 이때에 즈음하여, 내년 총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각계의 지원을 받아 내기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발기인대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국의 종교연합 평화운동의 주역으로서 귀중한 자리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평상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내년 해외로부터 오시는 귀한 손님들을 맞으시는 역할과 준비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지혜와 힘을 모으고 나누는 데 함께하여,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새삼 고마움을 표하며, 더욱 큰 지도와 편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며,
종교연합을 대표하여 간략히 환영사를 맺습니다.

진월함장

종교연합헌장(United Religions Initiative Charter)

전문 (前文 Preamble)

이 헌장에 의거하여 우리 전 세계 다양한 종교인들과 정신적 지도자들 및 토착전통인들은 일상적 종교간 협력을 영구히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을 종식시키며,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종교연합선도기구 (URI)를 창설한다.

우리들은 각 전통의 특성과 아울러 수행이나 신앙의 차이를 존중한다.

우리들은 남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의 가치와 지혜를 공유함이 우리들을 공동선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인도할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종교적, 정신적 생활들이 우리들을 분열시키기보다는 공동체 건설과 상호 존경을 도울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전통 속에 뿌리내린 상호의존적 인간인 우리들은 지금부터 지구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다.

우리들은 평화와 정의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지구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분쟁해결 및 치유와 화해를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국제법이 규정한 종교 및 정신적 표현의 자유와 모든 개인 및 민족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종교와 정신 및 토착적 전통의 지혜와 가치로 지구 공동체가 당면한 경제적, 환경적, 정치 사회적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책임 있는 협동적 행동으로 연합한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합(환영사)한다.

우리들은 활동 및 안정의 두 분야를 포괄하는 축복의 기쁨과 지혜의 빛을 향유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취합된 재원을 비폭력적이며 자비스런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심오한 진리를 자각하고, 사랑과 정의가 지구 공동체 안의 모든 생명 가운데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 연합한다.

목적 (目的 Purpose)

종교연합선도기구(URI)의 목적은 일상적 종교간 협력을 영구히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을 종식시키며,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려는데 있다.

원리 (原理 Principles)

1. 우리들은 하나의 교량 건설적 단체이지 하나의 종교는 아니다.
2. 우리들은 모든 종교의 신성한 지혜와 정신적 표현 및 토착 전통을 존중한다.
3. 우리들은 모든 종교와 정신적 표현 및 토착 전통간의 차이를 존중한다.
4. 우리들은 회원들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 안에서 근본을 심화시키도록 격려한다.
5. 우리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도록 공손히 경청하고 발언한다.
6. 우리들은 상호 환대를 주고받는다.
7. 우리들은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다양한 재능과 모범적 수행을 환영하고 추구한다.
8. 우리들은 종교연합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9. 우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비폭력적으로 치유와 화해를 실천한다.
10. 우리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구 보호 유지를 위해 건전한 생태학적 방법에 따라 행동한다.
11. 우리들은 다른 종교 간의 조직들과의 협조를 모색하며 협력한다.
12. 우리들은 이 헌장의 전문과 목적 및 원리에 찬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및 협회를 회원으로 환영한다.
13. 우리들은 모든 관련 집단이 포함된 지역 수준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갖는다.
14. 우리들은 이 헌장의 전문과 목적 및 원리에 합치하는 한 어떤 형태나 규모, 지역 및 주제나 활동으로도 모임을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15. 토의와 결정은 어느 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이해관련 당사자들의 주체와 방법이 공정하게 대변되는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6. 우리 (종교연합의 각 지부들)는 이러한 자율성과 재원들을 이 헌장의 전문과 목적 및 원리를 추구하는데 필수적일 경우에만 양도해야 한다.
17. 우리들은 자체의 필요에 따른 금융 및 기타 재원을 개발하고, 다른 부분의 필요를 돕는데 합당한 금융 및 재원을 분담할 책임을 진다.
18. 우리들은 성실성과 윤리적 행위, 재원의 검약, 정보의 공정한 공개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한다.
19. 우리들은 조직적 연구와 적용에 최선을 다한다.
20. 우리들은 이 헌장과 정관 등 관련 문헌들을 전문과 목적 및 원리와 종교연합 정신에 따라 번역, 해설하려는 모든 언어의 풍부성과 다양성 및 참가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 한다
21. 종교연합선도기구 회원들은 어떠한 의식에 참석이나 개종토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연합헌장 작성과정과 조인 배경

진월(종교연합 세계이사)

<종교연합선도기구 URI>는 1995년 6월에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연합종교행사”를 그 창설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갖기 위하여 그 행사준비를 유엔으로부터 요청받고 책임을 지게 된 윌리엄 스윙 주교(성공회 캘리포니아 관구장)의 구상 및 제안에 의하여 발기되었으며, 그 근본이 되는 헌장은 수년 동안 전세계종교지도자들의 협의와 준비 노력 끝에 2000년 6월 26일 피츠버그에서 조인되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 경위와 배경을 간략히 살펴 본다.

스윙 주교는 종교연합 행사를 유엔본부로부터 요청받은 1993년 2월부터 생각하기를, 유엔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세속 국가들의 연합이면서도 세계평화를 위해 협조하여 이바지하고 있는 반면, 평화와 사랑을 부르짖고 있는 세계종교들은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반성하면서,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들은 종교인들이 평화구현을 위해 세속인들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였다기보다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중동 등지에는 현재도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 주목하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부정할 수 없었고, 이에 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는 유엔창설 50주년행사를 마치면서 함께했던 종교지도자들과 “최소한 종교로 말미암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종교적 유엔인 종교연합(United Religions, UR)의 창설이 필요함을 절감하였고 그 실현을 도모하게 되었다. 1996년 봄 스윙 주교는 유라시아 여행을 통해, 달라이 라마, 테레사 수녀, 교황을 비롯한 기독교, 불교, 회교, 힌두교, 유대교 등 세계적 종교지도자들을 방문하여 관심사와 의견을 나누었다. 일련의 노력으로 그해 6월 24부터 26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60여명의 각국 종교지도자가 모인 제1차 세계회의 (Global Summit I)가 열렸고, UR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조직으로서 <종교연합선도기구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RI 종련>이 창립 발기되었으며, 윌리엄 스윙 주교가 회장이 되어 이끌게 되었다.

1997년도 <종련>의 세계회의(URI Global Summit II)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남부 스탠포드 대학구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100여명의 세계종교지도자와 더불어 정신 교육가, 자선사업가, 평화운동가, 교육자, 예술인, 과학자, 환경운동가, 청소년지도자 등을 포함한 약 200여명의 각계대표들이 함께 새로운 세계적 종교문화 조직으로서 UR의 창립 가능성을 탐색하였다.¹⁾ 가톨릭과 정교회 및 개신교를 포함한 여러 종파의 그리스도교, 남방과 북방전통을 포함한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 이른바 세계종교들은 물론, 중국의 도교, 일본의 신도, 인도의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바하이교, 인디안 토속교 등, 다양한 종교대표들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북 아메

1) 한국에서는 불교계 내지 범종교계를 대표하여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이었던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이 초청되었으나 사정상 당시 버클리대학에 있던 진월 스님이 대리로 참석했다.

(강연 1- 진월스님)

리카, 대양주에서 모여 문자 그대로 지구를 망라한 종교의 세계회의를 이루었다. 이 회의에서는 2000년도에 조인할 수 있도록 유알 현장의 연구와 개발계획을 세우고, 세계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1998년도세계회의(URI Global Summit III)도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년과 같은 장소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그 동안의 연구개발결과를 토대로 현장초안을 작성했고,²⁾ 그 구체적 평화운동사업의 하나로서 “시한부총격중지”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38개국으로부터 32종의 전통종교와 14개 토착종교 대표가 동참한 동회의에도 한국대표로는 발제자가 참가했다. 거기서 작성된 초안은 1999년까지 전 세계에 유통 회람시켜 보완과 수정을 한 뒤에 2000년도에 서명 조인을 거쳐 정식으로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고, 총격중지 (Global Religious Cease Fire) 계획은 새 세기를 맞는 시점인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상징적으로나마 지구 전체에 걸쳐 분쟁 상대들에게 상호 총격중지를 요청하여 화해분위기를 가꾸어 보자는 시도였다.

1999년도세계회의(URI Global Summit IV)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년과 같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제자를 포함하여 10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그 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현장초안을 다듬었고, 새천년맞이 평화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거기서 작성된 초안은 다음 해까지 전 세계에 공람시켜 보완한 뒤에 2000년 6월 26일에 서명 조인을 거쳐 정식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륙 단위로 참가자들의 협의를 갖고 세계이사회회의(Global Council)에 보낼 대표를 선출하였다.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할당된 3인의 대표선출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권 대표로 발제자를, 인도와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를 포함하는 남아시아권 대표로 제임스 샤난 신부를, 인도네시아와 태국 및 필리핀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권 대표로 리리안 큐라밍 수녀를 추대하였다.³⁾

2000년에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피츠버그에서 종교연합 현장조인식을 겸한 제5차 세계총회(Global Summit V)가 열렸다. 현장조인식을 6월 26일에 거행한 것은 유엔 현장조인일과 같은 날로 삼아 그와 평행을 이루고자 한 의도였지만, 장소는 유엔 창설지였던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피츠버그로 정한 까닭은 종련의 특성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2) 초안에서, UR의 목적으로는 “그 안에서 정신적 유대로 모든 생명의 존중과 더불어 세계인류가 정의, 치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창설”함이며, 조직의 원리로서는 “우리는, 각종교의 지혜와 聖物들을 깊이 존중하고 공유한다.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하여 존경으로 경청하고 대화한다. 어떠한 폭력도 배제하며 화해를 통해 분쟁에 대처한다. 다른 범종교적 단체들과 협조한다” 등을 열거했다.

3) 당면과제들로 <72시간 계획 72 Hours Project>, 2000년 6월에 있을 UR 현장조인과 창립식, <종교연합연구소 (UR Institute)> 및 기금조성 계획 등이 다루어졌다. URI 명칭은 당분간 계속 이니셔티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발음이 서로를 일치시키는 (You are I 당신이 나다) 뜻을 살려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세기말에 펼칠 새천년맞이 <72시간(1999.12.31-2000.1.2)> 계획은, 세계 각처에 산재한 종교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종교인과 사회인들이 지역 및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을 함께하며 각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게 공동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연 1- 진월스님)

였다. 피츠버그 시민과 관계기관의 초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츠버그가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다리 수(700여 개)를 갖고 있으므로 종교 간에 교량적 역할을 자임한 우리가 그 곳의 상징성을 취하였던 것이다. 200여명의 각국 각종교계 대표가 참석한 대회는 카네기 멜론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의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발제자가 과도세계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몇 년에 걸쳐 준비된 현장초안은 카네기 음악당에서 거행된 장엄한 조인식을 계기로 공식 선포되었는데 그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방송되었다. 회의기간 동안 확정된 현장에 따라 한국지부를 포함하여 각지부들이 이사회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정식 회원으로 승인되었다. 이후 세계 도처에 지부가 창설되어왔으며, 본부와 협조아래 지역별로 현지사정에 알맞게 종련 현장정신을 펼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⁴⁾

종련 현장 작성과 조인의 의의에 대하여 돌이켜 보면 첫째, 현장 작문과정을 들 수 있다.⁵⁾ 이 현장은 인류의 장래를 위하여 제시하려는 멋있는 전망을 몇몇 사람이 한 방안에 모여 앉아 적당히 만들어 낸 작품이 아니다. 그 대신, 이 현장은 전 세계를 통해서 모인 수천 명의 다양한 종교인들과 정신적 표현 및 토착 전통인들의 합작품이다. 다양한 전통을 대표한 사람들인 까닭에, 그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하려고 상호 존경과 이해 속에 함께 일하는 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

현장 작성시작과 조인까지 약 4년 과정의 주요사건 가운데 에피소드 하나를 예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장이 조인되기 1년 전 마지막 종련 세계회의가 열린 1999년 6월 스탠포드 대학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종련 공동체는 종련 현장을 만들기 위해 3년 이상 연구해 왔으며, 보다 좋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수천 명의 유대인과 불교인, 힌두교인, 회교인, 자이나교인, 조로아스터교인, 기독교인, 바하이교인, 정신적 표현 및 토착 전통인들이 초청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바, 그 속에 살고 싶고 그들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며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묘사해 보라고 요청되었다.

이 세계적 조사 연구는, 각각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마련되며 이들이 고유하고 존귀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세계에 대하여 공유된 비전을 도출했다. 즉,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교육이 모두에게 제공되며, 사랑에 의해 증오가 사라지고, 평화조성으로 전쟁이 사라지며, 인간이 유지하는 모든 영역에 불의와 압제가 정의로 변화됨을 알리는 세상이다. 이는 우리들의 다양한 전통들의 가장 심오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세계의 비전이다. 그렇게 공유된 비전이 도출되었지만,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다: 우리들이 보다 좋은 세상으로 공유한 비전의 실현에 협조하도록, 사

4) 2000년 6월 창설당시 86개였던 지부 수가 2004년 5월 현재 241으로 증가되었고 참가종교수도 배가되어 현재 70여개의 종교전통이 동참하고 있다.

5) 종련 본부 사무총장인 찰스 깁스와 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술한다.

(강연 1- 진월스님)

사람들이 어떻게 전형적으로 나뉘어진 종교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할지 상상할 수 있는가? 만약 그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전에 봉헌된 세계조직 안에서 그러한 세상을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현시키는데 함께 일할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한 조직의 목적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조직의 활동이 어떠한 기본적 가치와 원리에 의해서 전개될지 상상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조직에 소속할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귀하는 어떤 종류의 조직 형태를 갖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조직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점점 더 큰 규모의 사람들 집단들에 반복해 물어졌었고, 그에 대한 응답들이 현장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1998년 6월의 세계회의 끝에 현장의 첫 번째 초안을 작성되었다. 이것은 전문, 목적, 기본적 원리들과 아울러 조직구도의 개략을 포함했다.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 사이,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그 현장초안은 전 세계에 보급 유통되었다. 아울러 조직개발부원들이 매 분기에 2번 3일간 전문과 목적 및 원리들에 대하여 들어온 반응들을 통합하고 조직구성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만났다.

1999년 6월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세계회의에 이르렀을 때, 종련 현장의 새로운 초안이 만들어졌다. 전년도에 만들어진 현장의 목적과 전문, 원리와 조직구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4일을 보냈다. 그때까지의 현장초안 서술에 전 세계 각지의 수많은 개별 전통들로부터 온 수많은 의견들이 수렴됐다.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그들의 절실한 결의 및 최상의 희망들과 연계된 말들을 점점 많이 발견했다.

그 세계회의의 말미에 이르자, 이 세계적인 집단에게 완료된 작품의 감각이 물어졌다. 현장초안의 전문과 원리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동의와 인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장초안의 목적에 대하여 물었을 때는 전폭적인 반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목적 서술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열정을 가진 이라면 그에 관한 모임에 동참하도록 초청되었다.

그 날 늦게 30여명이 둘러앉았다. 사회자가 그 그룹에 묻기를 “이 목적 서술 안에서 만약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무엇이 여러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했다. 맨 먼저 말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미카엘 잉감이라는 이름의 캐나다에서 온 성공회 주교였다. 그 주교는 대답하기를 “기독교인의 한사람이며, 영국인의 한사람이며, 주교의 한사람으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적 안에 ‘神’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신’이 그 안에 없으면 나는 그 목적 안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강력하고 분명한 성명은 그 주교의 가슴에서 나왔으며 사람들은 그 주교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신중히 경청했다. 그 주교의 말씀 후, 참가자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한사람씩 돌아가며 무엇이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주교

(강연 1- 진월스님)

의 바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 차례가 되었는데, 불교대표였다. 그 역시 강력하고 감동적으로 목적 서술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목적 서술에 관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인의 한사람으로서 만약 그 목적 서술에

‘신’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 순간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 목적 서술 안에 두 가지 즉 “신”을 갖기도 하고 안 가질 수도 있을까? 그 순간, 3년에 걸쳐 300여 회의 시도 후에, 장차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목적 서술을 위한 말은 결코 찾을 수 없으리라고 말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쉬운 길을 취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몇 년간 공동체 안에 함께 하면서, 각자가 서로 조심스럽게 경청하면서, 비록 우리가 함께 살 공동의 장을 추구하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곳으로서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함께 일하려는 결심과 애정 안에서 연대되었다. 이 사연은 “신”을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 말을 찾기 위해 보다 깊은 표현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모두가 그들이 포함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바, 충분히 뜻이 큰 말을 찾도록 각성시켰다.

그 날 이후 목적 서술을 얻기 위해 본부요원들이 격무로 수개월을 보냈다. 신중히 음미한다면, 누구나 현장 목적 안에서 “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불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전문은 목적부터 시작한다: “우리, 전 세계 다양한 종교인들과 정신적 지도자들 및 토착 전통인들은 일상적 종교간 협력을 영구히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을 종식시키며, 또한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URI를 창설한다.”

진정한 현장의 평가는 이 현장이 영감을 주고 지도하는 더 좋은 세계를 위하여 실천하는 일에 달렸다. 이 현장의 가치 평가는 전 세계에 일상적 종교간 협력을 영구히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힘이 되도록 종련이 성공하는데 있다. 전 세계의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을 종식시키는 효과적인 힘이 될 때 그 가치는 확장될 것이다. 우리가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힘이 될 때 이 현장의 가치는 확장될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연합 운동의 영원한 나침반인 종교연합현장은 모든 종교의 지혜와 사랑이 모여 짜진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신적 협동산물로서 인류의 종교사에 높은 봉우리로 길이 빛날 것이다.

(강연 2- 셸리 마헤)

The URI Charter... Four Years Later

Sally Mahe (URI Manager)

An-nyeong ha-sim-ni-kka (Hello!)

My name is Sally Mahé, and I have worked as core staff for the URI in organizational development since 1996. I bring you warm greetings from Charles Gibbs, the Executive Director, the URI Global Council trustees, the global support staff located in San Francisco and in 8 regions of the world, and from the members of URI Cooperation Circles, like yourselves, in all parts of the world.

It is a delightful pleasure to speak with you at this URI Korea assembly. It is a special honor to join with you this day to celebrate the signing of the URI Charter and the birth of the United Religions Initiative, just four years ago. More than words in a document, the URI Charter is creating a powerful global community that ignites people's creativity and action for interfaith cooperation and supports them with trustworthy friendship.

The URI began with one man's conviction and soon, there was a small community of people from different continents who shared this conviction and realized that people from different faiths, spiritual expressions and indigenous traditions could make a better world by cooperating instead of fighting; and, by respecting one another instead of being critical of one other and by working together to accomplish their aims.

The very idea of interfaith cooperation has come along way in credibility in four years. I want to offer us a quote to remember when we take on the next new thing that seems impossible.

"At first people refuse to believe that a strange new thing can be done, and then they begin to hope it can be done, then they see it can be done - then it is done... and all the world wonders why it was not done centuries ago." Frances Hodgson Burnett

In four years, the URI has grown to be a dynamic and expanding global community of diverse people dedicated to enduring daily interfaith cooperation, stopping religiously motivated violence and creating cultures of peace, justice and healing for our Earth and for all living beings.

(강연 2- 셸리 마헤)

Today, the URI includes approximately 35,000 people, self-organized in over 260 Cooperation Circles, located in over 60 countries. The URI is now a community of people from five continents and a multitude of religions and spiritual backgrounds who respect each other, care about each other, exchange resources and ideas with each other, and enliven and encourage each other. The URI is a special kind of organization - it is a growing global family that is making a difference.

Here in Korea, you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URI story. The early growth of Cooperation Circles throughout South Korea is inspiring. The work of bridge building and interfaith out reach is contagious. When people see people working together and making a difference locally, they believe change is possible and they are encouraged to take action and make their visions real too. Thank you, Korean CCs, for helping to lead the way. We hope that during this short visit to Seoul, we can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and we can learn more about your work.

The Venerable Jinwol Lee has been a friend and colleague for several years. Jinwol's competence and wise, beaming smile has been a bright and enduring contribution over the years. Thank you, Jinwol, for your years of leadership with the URI and your irrepressible commitment to URI's vision: to build bridges of cooperation and respect among people from different faith traditions and backgrounds.

So, how are we doing after four years? How is the URI sustaining its work and achieving its purpose? How is the URI living the words of its Charter?

The URI aims to be inclusive, all people who agree with the Charter Preamble, Purpose and Principles are welcome. In a Survey last year, we discovered that people from over 60 different religions and spiritual traditions count themselves members of Cooperation Circles. A growing interfaith youth network connects over 120 young adults from various faiths and different countries in lively email communication. Growing numbers of young adults, indigenous tribal people, members of church hierarchy, people in mainstream religions, secular leaders, and people exploring various spiritual paths are finding a safe place at the URI and participate constructively with each other.

URI is self-organizing. People organize themselves and create their own ideas and unique

(강연 2- 셸리 마헤)

activities to achieve the URI purpose. As you know, our unit of local organization is called a Cooperation Circle: at least seven people, three of whom are from different faith or spiritual traditions can form a Cooperation Circle and choose carry out the Purpose of the URI in their own way. There has been a steady growth of Cooperation Circles on every continent. Recent growth includes: a new cluster of CCs from various indigenous cultures in Latin America, an interfaith youth movement of new CCs in India, and a new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CC that is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create an enduring legal structure for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URI pursues its Purpose and enlivens its impact by creating a balance of focus between local efforts, regional support, and global solidarity. URI has developed a natural three year rhythm as a means to build its effectiveness and catalyze its growth:

Year 1: attention to local work

Year 2: attention to regional support

Year 3: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global community

The last URI Global Assembly was in Rio de Janeiro in 2002. Over 300 members of CCs and friends of URI celebrated their diversity, expanded their expertise in interfaith peace building skills, and deepened their commitments. In Rio, the feeling was electric and transforming when we realized that we were being the global community we wanted to become!

In 2003, URI CCs focused on local work. Some highlights are: in the Philippines, CCs led peacebuilding training workshops in Brazil, CCs helped pass gun control legislation, in Korea, CCs created an interfaith cyber space community, and in India, CCs built an interfaith garden from a strip of discarded land, In Africa, AIDS intervention continues. A CC Survey collected stories and facts about the URI community worldwide.

This year, in 2004, regional teams are enthusiastically planning regional gatherings and looking at ways to strengthen CCs and help expand URI's reach in each region. In Asia, a regional gathering is planned in Lahore, Pakistan that will include a historic peace train from Delhi to Lahore. In Latin America, regional gatherings will take place in a high farming village in Peru and in an urban city in southern Brazil. Regional teams on every

(강연 2- 셀리 마헤)

continent are speaking together regularly and sharing ideas for effective ways to help connect and publicize interfaith work in their regions.

Looking just one year ahead to June 2005, the URI global community will come to Seoul to hold its second Global Assembly. It is a remarkably propitious time and place and the URI is deeply grateful to Jinwol and the people of Korea for extending this invitation and hospitality. The Assembly next year will mark three historic occasions:

the 5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 and the 3rd Anniversary of the World Cup. It is envisioned that this Assembly will deepen people's ability to bridge the chasms that divide them and be an inspi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Plans have envisioned a peace pilgrimage to the DMZ that includes spiritual and religious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people of Korea standing together for peace, justice and healing the wounds that divide.

The Global Assembly is significant because it inspires us to ask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s of ourselves... What is the common work of humanity? And, together, how can we do it at unprecedented levels? The Global Assembly is not just another conference with big name speakers and cultural programs, although it may include such events. In the words of the URI Charter, the Global Assembly is:

...a vibrant gathering where people deepen their experience of living into the Preamble, Purpose and Principles as a global community. The Global Assembly addresses collective actions for service in the world and gives voice to collective hopes and aspirations. It aligns strengths and calls forth unprecedented cooperation. It celebrates the totality of the URI and offers opportunities to give and receive hospitality, to share work and help each other.

(강연 2- 셀리 마헤)

The Global Assembly is the most brilliant building block for the URI global community because it honors the importance of the face to face meeting of the world's people. It expands people's skills to do the work that is dear to their hearts and it strengthens our bonds of identity as one human family.

The Global Assembly gives us opportunity to act with collective force to do the common work of humanity; namely, to bring peace, justice and healing to the Earth and all living beings.

I am eager to listen to your stories about your local work and share ideas about how we will work together to create a historic Global Assembly 2005 that will help bridge the chasms that divide Korea and the people of the world.

It is time for ordinary people to become a global force for good in the world. The URI Global Assembly 2005 in Seoul is our chance to make a difference and, in the words of Gandhi, "to be the change we want to see in the world."

I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make it happen and seeing you there!

Gam-sa ham-ni-da. (Thank you)

창립취지문

<세계종교연합 URI>는 유엔 창설 50주년에 즈음하여 1995년 그 창설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종교연합행사 후, 종교적 유엔을 표방하며 발기되었고, 여러 해 동안 모든 종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헌장 작성에 공을 들여, 대망의 2,000년 6월 26일 '다리의 도시' 피츠버그에서 종교간 교량적 역할을 자임하며 <종교연합 헌장> 조인과 함께 출범되었다. 그 헌장정신을 한국에 구현하려고 1999년 5월 15일 서울에서 결성된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URI-Korea>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활동해 오다가, 2005년도 종교연합 세계총회를 서울에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종교간 협력을 영구히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을 종식시키며,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사단법인 한국종교연합 URI-Korea>를 창립발기하고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후, 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한다.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본 법인은 종교 본연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상생과 평화의 문화건설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그 뜻을 밝혀둔다.

2004년 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종교연합 발기인 일동

(사단법인) 한국종교연합 정관

(2004년 6월 19일 발기인총회 제정 시안)

전 문(前文 Preamble)

우리 한국의 다양한 종교인들과 정신적 지도자들 및 토착 전통인들은 일상적 종교간 협력을 영구히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을 종식시키며, 또한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종교연합(URI Korea)>를 창설한다

우리들은 각 전통의 특성과 아울러 수행이나 신앙의 차이를 존중한다.

우리들은 남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의 가치와 지혜를 공유함이 공동선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믿는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종교적 정신적 생활들이 우리들을 분열시키기보다는 공동체 건설과 상호 존중을 도울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전통 속에 뿌리내린 상호의존적 인간인 우리들은 지금부터 한국 및 지구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다.

우리들은 평화와 정의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한국 및 지구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분쟁해결 및 치유와 화해를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헌법과 국제법이 규정한 종교 및 정신적 표현의 자유와 모든 개인 및 민족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종교와 정신 및 토착적 전통의 지혜와 가치로 한국 및 지구 공동체가 당면한 경제적, 환경적, 정치 사회적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협동적 행동으로 연합한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및 세계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활동 및 안정의 두 분야를 포괄하는 축복의 기쁨과 지혜의 빛을 향유하기 위해 연합한다.

우리들은 취합된 재원을 비폭력적이며 자비스런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심오한 진리를 자각하고, 사랑과 정의가 한국 및 지구 공동체 안의 모든 생명 가운데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 연합한다.

URI 본부 및 지역기구들과 협조하여 세계적 공동사업에 동참함은 물론, 한국내의 지역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합한다.

제1조 [목적]

<사단법인 한국종교연합 (URI Korea), 이하 본 법인>의 목적은, “일상적 종교간 협력을 영구히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을 종식시키며,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는 세계종교연합(URI) 헌장의 목적을 한국에 실현시키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다.

제2조 [원리]

본 법인 (URI Korea)의 사원들은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1. URI는 교량 건설적 단체이지 하나의 종교는 아니다.
2. URI는 모든 종교의 신성한 지혜와 정신적 표현 및 토착 전통을 존중한다.

(정관 제정 시안)

3. URI는 모든 종교와 정신적 표현 및 토착 전통간의 차이를 존중한다.
4. URI는 회원들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 안에서 근본을 심화시키도록 격려한다.
5. URI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도록 공손히 경청하고 발언한다.
6. URI는 상호 환대를 주고받는다.
7. URI는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다양한 재능과 모범적 수행을 환영하고 추구한다.
8. URI는 종교연합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9. URI는 분쟁 해결을 위해 비폭력적으로 치유와 화해를 실천한다.
10. URI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구 보호 유지를 위해 건전한 생태학적 방법에 따라 행동한다.
11. URI는 다른 종교간의 조직들과의 협조를 모색하며 협력한다.
12. URI는 현장의 전문과 목적 및 원리에 찬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및 협회를 회원으로 환영한다.
13. URI는 모든 관련 집단이 포함된 지역 수준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갖는다.
14. URI는 우리들은 현장의 전문과 목적 및 원리에 합치하는 한 어떤 형태나 규모, 지역 및 주제나 활동으로도 모임을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15. URI는 토의와 결정은 어느 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이해관련 당사자들의 주체와 방법이 공정하게 대변되는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6. URI는 자율성과 재원들을 현장의 전문과 목적 및 원리를 추구하는데 필수적일 경우에만 양도해야 한다.
17. URI는 자체의 필요에 따른 금융 및 기타 재원을 개발하고, 다른 부분의 필요를 도우는데 합당한 금융 및 재원을 분담할 책임을 진다.
18. URI는 성실성과 윤리적 행위, 재원의 검약, 정보의 공정한 공개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한다.
19. URI는 조직적 연구와 적응에 최선을 다한다.
20. URI는 현장과 정관 등 관련 문헌들을 전문과 목적 및 원리와 종교연합 정신에 따라 번역, 해설하려는 모든 언어의 풍부성과 다양성 및 참가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한다.
21. URI는 회원들에게 특정 종교의식에 참석이나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3조 [사원]

- 1항 [자격] 본법인의 사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사를 희망하는 이로 구성되 정사원과 준사원을 둔다. 정사원은 한국에 살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활동을 하는 이로 한다. 준사원은 한국에 사는 비종교인이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본법인에 호응 동참하거나 후원하는 이로 한다.
- 2항 [권리와 의무] 정사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고, 총회를 구성하여 본법인의 중요사안을 결의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서 결정한 사비 납부와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제4조 [총회]

총회는 본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연다. 정기총회는 매년 일사분기(1-3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나 회원 삼분의 일 이상이 서명으로 요구할 때, 대표의 소집으로 이루어진다. 총회는 임원 선출, 사업 승인, 예산 결산 인준,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제정 시안)

제5조 [임원 조직]

본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해 3년 임기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 1항 [대표] 대표 1명: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조정하며 총회 및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항 [이사] 10명 내외: 본회 창설취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창립이사 1인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는 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가 위임한 사업 및 기타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며,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3항 [감사] 감사 2명: 감사는 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사업진행과 결산을 감사한다.
- 4항 [고문·자문 및 지도위원] 본법인은 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줄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자문 및 지도위원을 둔다. 종교계의 수장 및 원로나 전문가를 이사회에서 추대나 선임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 5항 [집행위원] 10명 내외: 본법인 운영의 실무 협의를 위해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집행위원들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과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업무를 협의 집행한다.
- 6항 [기타] 사무처 직원이나 필요한 부서 및 특별 위원회 인사는 대표가 선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조 [사업]

본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내의 종교인들간에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운동.
2. 종교인들간의 공동선을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훈련 활동.
3. URI 본부와 연계하여 행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사업.
4. 본회 발전을 위한 기획과 홍보 및 기타 필요한 사업.
5. 본회 목적과 관련한 단체들과 연락 및 제휴.
6. 평화적 민족 통일 성취 등 남북 문제해결에 종교적인 방책연구와 그 실현.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 [재정]

본법인의 재정은 사원의 사비와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초부터 12월말로 한다. 예산과 결산의 감사는 정기 총회 전에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사무소]

본법인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다음의 사무소를 둔다.

- 1항 [본부] 상설 본부 사무처는 서울에 두되, 지방에도 필요에 따라 지회 및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정관 제정 시안)

- 부 칙 -

제1조 [시행]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2조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URI-Korea 와의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URI-Korea는 그 목적과 취지가 본 법인과 일치하는 모체로서 그 사업과 활동을 본 법인이 포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양 기구의 관계 및 활동은 관계법규와 상황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 정관 선포 이전에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URI-Korea>에 가입한 회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본 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원은 본 정관 심의 통과를 위한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 결정 후, 그에 따라 선임한다.

제4조 [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전한 상식과 관례에 따른다.

2004년도 (사)한국종교연합 사업계획

개요: 2005년도 종교연합세계총회 준비를 위한 홍보와 기금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함.

1. 종교연합 현장 조인 4주년 기념 (사)한국종교연합 발기총회

6월 1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연합 현장 조인 4주년 기념강연회를 통해 그 뜻을 기리며 그 동안의 성과를 음미하고, 2005년도 세계총회 준비 1년을 내다보며 그 행사 홍보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갖는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단법인화를 통해 대회후원금 유치에 원활을 기한다.

2. 세계종교의회 참가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의회(PWR)에 참가하여 내년 서울에서 열릴 종교연합세계총회를 홍보한다.

3. 종교연합 대학생 캠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설악산 혹은 태백산에서 7대 종교 전공 (동국, 서강, 성균관, 연세, 원광, 이화 등)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종교연합캠프를 개최하여 서로 배우고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9월 18일 세계평화의 날(9/21) 기념 평화음악회를 장충체육관(혹은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하여 평화운동을 강화하고 내년도 세계총회를 홍보하며 기금을 조성한다.

5. 종교연합 등산대회

10월 23일 북한산에서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등산대회를 갖고, 동고동락하며 산에 오르는 길은 달라도 정상에서 만나는 일체감을 배양한다.

6. 종교연합 후원인의 밤 및 송년회

11월 27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 철학마당에서 종교연합 후원인 들을 초대하여 감사만찬과 송년회를 가진다.

7. 종교연합에 대한 리플렛, 팸플렛, 포스터, 포스트카드, 티셔츠, 뉴스레터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신년달력도 제작 보급한다.

8. 수시로 상황에 따라 집담회와 워크숍을 가진다.

(사)한국종교연합 2004년도 예산서

수입예산		지출예산	
회비	일반회원회비 10,000,000원	경상비	인건비 (총67,000,000원) 상근 55,000,000원 사무처장 20,000,000원 차장 15,000,000원 간사 10,000,000×2 = 20,000,000원 비상근 12,000,000원 수시일용직 600,000×2 = 12,000,000원
	임원회비 2,000,000 × 10 = 20,000.000원		사무실 관리유지비 (총11,020,000원) 임대관리비 400,000×12 = 4,800,000원 전화 팩스 인터넷 50,000×12 = 600,000원 우편및 통신 500,000원 신문 정보 30,000×12 = 360,000원 전기 가스 50,000×12 = 600,000원 소모품 30,000×12 = 360,000원 회의비 200,000×12 = 2,400,000원 교통비 100,000×12 = 1,200,000원 청소비 200,000원
	소계 30,000,000원		소계 78,020,000원
후원금	250,000,000원	사업비	1. 현장4주년기념 법인발기인총회 3,000,000원 2. 종교연합 대학생캠프 20,000,000원 3.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60,000,000원 4. 종교연합 등산대회 10,000,000원 5. 종교연합평화발원모임 3,000,000원 6. 홍보물 제작보급비 10,000,000원 7. 비상대처비 5,000,000원
국고지원	30,000,000원		소계 111,000,000원
기금조성 사업	70,000,000원	지출총계	189,020,000원
수입총계	380,000,000원	잔액	194,980,000원 (세계총회 준비용)